



## 지옥의 모습과 위치와 수호

582. 영들과 천사들이 사는 곳인 영계에 보이는 사물은 사람이 사는 자연계의 사물과 거의 비슷하다. 겉모습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 세계에도 산과 들, 언덕과 바위들, 그리고 그 사이의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물이나 그밖에 지상에 있는 많은 것이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적 근원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영들과 천사들의 눈에는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자연계에 있기 때문이다. 영적 존재들은 영적 근원에서 나온 것을 보고 자연적 존재들은 자연적 근원에서 나온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계에 있는 사물을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다. 영의 상태에 드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나, 아니면 죽은 후 영이 되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천사나 영은 자연계에 있는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다. 단, 그 영과 말할 수 있게 허락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예외다. 비록 사람과 영의 눈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지만, 사람의 눈은 자연계의 빛을 받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천사의 눈은 영계의 빛을 받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계가 그렇다는 것을 자연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감각적인 사람은 더구나 이해를 못한다. 감각적인 사람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즉 시각과 촉각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생각은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고 물질적이다. 영계와 자연계가 그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뒤에 자기가 태어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과 거기서 떠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죽음은 단지 한 세상에서 그와 비슷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 두 세계가 그렇게 비슷하다는 것은 이 책 앞부분에 천국의 표상과 외관을 다룬 곳에 나와 있다(170-176).

583. 천국이 영계의 가장 높은 지역이고, 중간영계가 그 아래에 있고, 지옥은 맨 아래에 있다. 중간영계에 있는 영들은 그들의 내적 시각이 열렸을 때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이 보일 때도 가끔 있는데, 이때는 안개나 밝은 구름처럼 나타난다. 그 이유는 천국 천사들은 그 지성과 지혜가 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간영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영계의) 평지와 계곡에 있는 영들은 서로에게 보인다. 다만 그들이 자기 내면의 상태로 들어가면 분류가 이루어지고, 그때 악한 영들은 선한 영들을 보지 못한다. 선한 영들은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지만, 악한 영들이 보이면 그들에게서 돌아선다. 영들은 돌아서면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지옥은 봉쇄되어 있으므로 볼 수 없다. 단지 그들과 동질의 영이 들어갈 때 지옥문이라 하는 그 입구들만 보인다. 모든 지옥문은 중간영계에서 열리며 천국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584. 지옥은 사방에 있다. 산과 언덕과 암벽 밑에, 평지와 계곡 밑에 어

디에나 있다. 산과 언덕과 암벽 밑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입구, 즉 문은 구멍이나 바위틈 같이 보이고, 어떤 것은 넓게 벌어져 있고 어떤 것은 가늘고 좁으며, 대부분 울퉁불퉁하다. 들여다보면 전부 어둡고 컴컴하다. 그 안에 있는 지옥적 영들은 타는 석탄에서 나오는 것 같은 불빛 속에 있다. 그들의 눈은 그 빛에 적응되어있다. 그들이 세상에 살 때 신적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적 진리에 대해서는 캄캄했고, 허위를 확신했으므로 허위에 대해서는 밝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영들의 시각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천국의 빛은 그들에게 짙은 어둠이며, 따라서 그들이 자기 동굴 밖으로 나가면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신성을 인정한 정도만큼만 천국의 빛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자신 안에 천국과 교회에 속한 것을 확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사람이 신성을 부인한 정도만큼 지옥의 흑암으로 들어가며 자신 안에 천국과 교회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확립한다는 사실이다.

585. 평지와 계곡 밑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입구, 즉 문은 눈앞에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것은 산과 언덕과 암벽 밑에 있는 입구와 비슷하고, 어떤 것은 토굴과 바위굴 같고, 어떤 것은 깊은 구렁이나 소용돌이 같으며 어떤 것은 수렁이나 늪같이 보인다. 이 모든 입구들은 다 덮여 있고 중간영계에서 영이 던져질 때만 열린다. 열릴 때마다 거기서는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처럼 불이나 연기 같은 것이 뿜어 나온다. 아니면 연기 없이 화염만 나오거나 불 때는 굴뚝에서 나오는 그을음 같은 것, 또는 안개나 먹구름 같은 것이 뿜어 나온다. 내가 들은 바로는 지옥의 영들은 이런 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 안에 있으면 마치 자기에게 적합한 공기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자기 생명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빠져 있는 악과 허위에 상응하

기 때문이다. 불은 미움과 복수심에, 연기와 그을음은 거기서 나오는 허위에, 화염은 자기사랑의 악에, 그리고 안개나 먹구름은 그 사랑에서 나온 허위에 상응한다.

586. 나는 또 허락하심에 따라 지옥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게 되었다. 주께서 원하실 때는 영이나 천사의 시각은 봉쇄된 지옥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위에서 꿰뚫어 그들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어떤 지옥들은 안으로 들어가다가 비스듬히 또는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가 심연에 이르는 동굴이나 바위굴 같이 보였다. 어떤 지옥들은 숲 속 맹수들의 굴이나 우리 같았고, 또 일부는 광산의 동굴이나 통로 같았는데 그 동굴은 더 아래 지역으로 이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지옥은 세 층으로 되어있다. 위층은 그 안이 흑암으로 보인다. 거기 거주자들이 악에서 비롯된 허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더 낮은 층은 불타는 것처럼 보인다. 그 거주자들은 악 자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흑암은 악에서 비롯된 허위에, 불은 악 자체에 상응한다.

내적으로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더 깊은 지옥에 있고, 외적으로 악하게 행한 사람들, 즉 악에서 나온 허위로 행동한 사람들은 덜 깊은 지옥에 있다. 어떤 지옥들은 큰 화재 뒤의 폐허나 도시같이 보이고 그 안에 지옥적 영들이 숨어 살고 있다. 덜 악독한 지옥들에는 초라한 헛간 같은 것들이 보이고, 골목과 거리를 끼고 그 헛간들이 시가지 형태로 줄지어 있는 곳도 있다. 그 집집마다 지옥적 영들이 끊임없는 말다툼과 적대시, 싸움과 폭행을 일삼고 있고 거리와 골목에는 강도와 강탈이 횡행한다. 또 어떤 지옥들은 온갖 더러움과 배설물로 가득한, 보기에든 역한 사창가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또 어두운 숲도 있다. 그 속에는 지옥적 영들이 맹수들처럼 돌아다니고, 거기 땅굴도 있어 남에게 쫓기는 영들이 도망쳐 들어

간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래뿐인 사막지대도 있다. 그중 어떤 곳은 여  
기저기 굴이 파진 암벽도 있고 어떤 곳에는 헛간들도 있다. 이 사막지대  
에는 지옥에서 온갖 극형을 받고 쫓겨난 영들, 특히 세상에서 의도적인  
음모와 계책을 쓰는 데 있어 남보다 더 교활했던 사람들이 간다. 그곳이  
그들의 종착점이다.

587. 지옥들의 자세한 위치는 천국의 천사들도 전혀 모른다. 오직 주님  
만 아신다. 그러나 그 대체적인 위치는 지옥이 있는 방위(구역)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옥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방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계  
에서는 사랑에 따라 방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국의 모든 방위는 해로  
계시고 동쪽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옥은 천국의 반대이므로 지옥  
의 모든 방위는 정반대 지점, 즉 서쪽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서는 천국  
의 네 방위에 대한 장에서 볼 수 있다(141-153).

(2) 이런 이유로 서쪽 구역의 지옥은 모든 지옥 중 가장 악하며 가장 끔  
찍하다. 동쪽에서 먼 정도만큼 점점 더 악하고 무서운 지옥이 된다. 서쪽  
지옥들에는 세상에서 자기사랑 안에 있던 사람들, 그러므로 남을 업신여  
겼고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했으며 자기에게 존경과  
경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 한 사람들이 있다. 그쪽 구  
역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옥은 소위 천주교도였던 사람들 중에 신처럼 승  
배되기를 원했고 따라서 인간 영혼과 천국을 좌우하는 자기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탄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들은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은 성격, 즉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  
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계속 갖고 산다. 그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잔  
인성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그들이 즐기는 그 잔인함  
은 거꾸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서쪽 구역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들의 지

옥 안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광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 《최후심판과 바빌론의 멸망》에 나와있다.

(3) 그러나 그 구역의 지옥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그 종류 중 가장 지독한 지옥들은 북쪽을 향한 측면에 있고, 덜 지독한 지옥들은 남쪽을 향한 측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지독함이 덜하고,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갈수록 덜하다. 동쪽 구역에 있는 이들은 교만하고 신성을 믿지 않았지만 서쪽 구역의 훨씬 더 깊은 지옥에 있는 이들처럼 그렇게 심한 미움과 복수심 또는 그렇게 심한 교활함은 없는 사람들이다.

(4) 동쪽 구역에는 현재 지옥이 없다. 전에 거기 있던 지옥들이 서쪽 구역 앞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북쪽과 남쪽 구역에는 많은 지옥들이 있고 그 안에는 세상에 살 때 세상사랑과 거기서 비롯된 원한, 적개심, 도둑질, 강탈, 사기, 탐욕, 무자비함 등 온갖 종류의 악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이 종류 중 가장 악한 지옥은 북쪽 구역에, 덜 악한 지옥은 남쪽에 있다. 그 지독함은 서쪽에 가까울수록 더하고 남쪽에서 멀수록 더하며, 동쪽과 남쪽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든다. 서쪽 지옥들 뒤에는 캄캄한 숲이 있고 그 안에서 악독한 영들이 짐승처럼 돌아다닌다. 북쪽 지옥들 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남쪽 지옥들 뒤에는 바로 앞에 설명한 사막이 있다.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그치겠다.

588. 지옥의 수효에 대해서 말하자면, 천국에 있는 천사 공동체와 똑같은 수효의 지옥이 있다. 천국의 각 공동체에는 그에 거꾸로 상응하는 지옥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천국 공동체들이 무수히 많고 각기 사랑, 이타심, 신앙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들을 다룬

장(41-50항)과 천국의 광대함을 다룬 장(415-420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옥 공동체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지옥은 천국의 선에 반대되는 악에 따라 구분된다.

(2) 모든 선과 마찬가지로 모든 악도 무한히 다양하다. 경멸, 원한, 증오, 복수심, 속임 등의 모든 악을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악은 하나 하나가 수많은 세세한 형태로 구분되고 그 각 형태도 다시 수많은 세세한 형태로 구분되므로 그것을 다 나열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정도라는 사실이다. 지옥들은 각 악의 차이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어 배치되어 있어서 그보다 더 완벽한 순서로 더 뚜렷이 구분된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지옥은 무수히 많고 악들의 일반적, 종류별,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서 서로 가깝거나 멀게 자리잡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3) 더욱이, 지옥 아래에도 지옥이 있다. 일부는 통로를 통해 다른 지옥과 교통하고, 대부분은 발산을 통해 교통한다. 이 교통은 한 악이 그 종류나 성질에 있어 다른 악과 유사한 정도에 정확히 비례한다. 허락하심에 의해 내가 지옥의 수효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한 것은, 지옥들이 모든 산, 언덕, 암벽 밑에 뿐 아니라 모든 평지와 계곡 밑에 있으며, 거기서 지옥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다. 한마디로 천국 전체와 중간영계 전체의 땅 밑이 파였다고 보면 되고 그 아래로 계속 이어지는 지옥이 있다고 보면 된다. 지옥의 수효에 대해서는 이만 줄인다.